

03 2027학년도 수시

합격선은 최저선이 아닙니다

70%컷·50%컷을 읽는 법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얼마나 벌어지나	3
03	왜 안 맞는가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50%컷·70%컷·100%컷이 각각 무엇인지 — **70%컷은 열 명 중 셋이 그보다 낮았다는 뜻**
- ◆ **70%컷과 끝자리가 1등급 넘게 벌어지는 곳이 16%** — 접으셨다면 자리를 버린 것입니다
- ◆ 작년 숫자가 올해를 못 맞추는 까닭 넷 (지원자·모집 인원·전형 방법·공개 방식)
- ◆ **컷은 판정하는 자가 아니라 줄 세우는 자** · 볼 때 확인할 여덟 가지

01 · 숫자부터

「컷」은 커트라인이 아닙니다

「작년 컷이 2.8이래요. 우리 애가 2.7이니까 되겠네요.」

가장 위험한 계산입니다. 「컷」은 합격 최저선이 아닙니다. 이름이 그렇게 들릴 뿐, 실제로는 합격자를 줄 세웠을 때 어느 자리의 성적입니다. 이 하나만 아셔도 원서 여섯 장이 달라집니다.

대학이 공개하는 값은 대개 셋입니다. 줄 세운 자리가 다릅니다.

이름	무엇인가	어떻게 읽나
50%컷	합격자를 성적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보통 이 정도가 붙었다」
70%컷	위에서 70% 자리에 있는 합격자	가장 널리 쓰이는 값
100%컷	맨 끝에 붙은 합격자	이것이 실제 최저선 에 가깝습니다

「컷」이라 부르는 것은 대개 70%컷입니다. 그런데 70%컷은 합격자 열 명 중 세 명이 그보다 낮았다는 뜻입니다. 커트라인이 아니라 상위 70% 지점입니다.

그러니 「내 성적이 컷보다 높으니 안전하다」는 계산은 기준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70%컷보다 높으면 작년 합격자 가운데 상위 70% 안에 든다는 뜻이지, 올해 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대학 제출) 2026학년도 자료를 저희가 집계. 공개 항목과 이름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02 · 얼마나 벌어지나

70%컷과 끝자리의 거리

그러면 70%컷과 실제 끝자리는 얼마나 벌어질까요. 세어 보았습니다.

무엇과 무엇	표본	중앙값 차이	어떻게 읽나
50%컷 → 70%컷	6,775줄	0.09등급	둘은 대개 가깝습니다
70%컷 → 100%컷	911줄	0.22등급	여기서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값만 보면 0.22등급이라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니다.

70%컷과 100%컷이	그런 곳의 비율
1등급 넘게 벌어지는 곳	16%
2등급 넘게 벌어지는 곳	5%

일곱 곳 중 한 곳꼴로 1등급 넘게 벌어집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70%컷보다 한 등급 아래인 학생도 붙었습니다. 「컷을 못 넘으니 안 된다」로 접으셨다면 쓸 수 있는 자리를 버린 것입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50%컷과 70%컷은 대개 붙어 있습니다(0.09등급).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좁은 구간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구간 위에 있다고 안심할 근거는 못 됩니다 — 그 구간에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요.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 2026학년도. 100%컷을 공개한 곳이 적어 표본이 작습니다(911줄). 대학마다 공개 범위가 달라 공개한 곳끼리만 견준 값입니다.

03 · 왜 안 맞는가

작년 숫자가 올해를 못 맞추는 까닭

컷을 정확히 읽으셔도 여전히 올해를 맞추지는 못합니다. 까닭이 넷입니다.

Q. 하나 — 합격선은 지원자가 만듭니다

대학이 미리 정해 놓은 선이 아닙니다. 그해에 누가 지원했는지가 선을 만듭니다. 작년에 몰렸으면 올해는 빠지고, 작년에 빠졌으면 올해는 몰립니다. 「작년에 낮았다」가 올해 낮을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작용합니다.

Q. 둘 — 모집 인원이 바뀝니다

같은 학과라도 해마다 뽑는 수가 달라집니다. 뽑는 수가 줄면 선이 올라갑니다. 요강의 올해 모집 인원과 작년 인원을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합니다.

Q. 셋 — 전형 방법이 바뀝니다

반영 과목, 등급 환산표, 면접 유무, 수능최저. 하나만 바뀌어도 작년 숫자와 올해 숫자는 다른 자를 쓴 값이 됩니다. 최저가 바뀐 해가 특히 그렇습니다 — 지원자 구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Q. 넷 — 공개하는 값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어디는 등급, 어디는 환산점으로 냅니다. 환산점수는 대학마다 식이 달라 서로 견줄 수 없습니다. 같은 「2.8」이 대학이 다르면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컷을 「가능성을 재는 자」가 아니라 「자리를 고르는 자」로 씁니다. 맞힐 수는 없어도 줄은 세울 수 있습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 및 각 대학 요강.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컷을 쓰는 차례와 점검표

컷은 버리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쓰는 법이 있습니다.

차례	무엇을	왜
1	세 해를 나란히 봅니다	한 해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2	모집 인원과 함께 봅니다	인원이 바뀌면 선이 움직입니다
3	100%컷이 있으면 그것도 봅니다	실제 끝자리가 어디였는지
4	여섯 장을 줄 세우는 데 씁니다	맞히는 데 쓰지 않습니다

4번이 핵심입니다. 컷으로 「붙는다·안 붙는다」를 판정하지 마시고, 여섯 장 사이의 순서를 정하는 데 쓰십시오. 「이 자리가 저 자리보다 위다」는 컷으로 꽤 잘 보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붙는다」는 컷으로 안 보입니다.

컷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이 숫자가 50%인지 70%인지 100%인지 확인했는가

☐ 등급 인지 환산점수 인지 구분했는가

☐ 환산점수라면 다른 대학과 견주지 않고 있는가

☐ 세 해 를 나란히 놓았는가

☐ 올해 모집 인원 이 작년과 같은지 보았는가

☐ 수능최저 가 바뀌지 않았는지 보았는가

☐ 전형 반영 방법 이 그대로인지 보았는가

☐ 이 숫자로 합격을 판정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항목이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컷은 지도이지 예보가 아닙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격 가능성 몇 %」라고 숫자로 말해 주는 곳을 조심하십시오. 그 숫자를 만들 근거가 공개 자료에는 없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합격선은 그해 지원자가 만드는 것이고, 지원자는 원서 마감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줄을 세워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컷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교과·학종·논술의 컷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6학년도 70%컷의 중앙값입니다 — 교과 **2.76등급**, 학종 **3.22등급**, 논술 **4.17등급**.

논술 컷이 가장 낮아 보이는 것은 **논술 전형이 내신을 거의 안 보기 때문**입니다. 내신이 3~4등급이어도 논술 점수로 갈립니다. **내신 컷이 낮다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 그 자리는 **다른 자로 재는 자리**입니다.

학종이 교과보다 낮은 것도 같은 까닭입니다. 등급 말고 **서류를 함께 읽기 때문에** 등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갈래가 다른 컷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갈래 안에서만 견주십시오.

Q. 그럼 무엇을 믿고 원서를 쓰나요?

믿을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산술로 정해지는 것들**입니다.

수능최저를 맞추는가 —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지원 자격이 되는가 —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고사일이 겹치는가 — 달력에 찍으면 보입니다.

모집 인원이 늘었나 줄었나 — 요강을 견주면 됩니다.

이 넷만 정확히 해도 **여섯 장 가운데 버리는 장이 없어집니다**. 그다음 남은 불확실은 **줄여지지 않습니다** —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쪽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맞힐 수 없는 것에 힘을 쓰지 마시고, 정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하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컷은 **지나간 해의 기록**이지 올해의 문턱이 아닙니다. **줄을 세우는 데 쓰시고, 판정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합격선은 **실지 않습니다**. 집계는 값을 공개한 대학끼리만 견준 것이라 전체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